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접촉점

조문상*

I.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이슬람에로의 접촉점의 성격
 - (1) 이슬람에로의 접촉점의 주요 대상
 - (2)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회심요인과 접촉점
2. 접촉점의 도구로서의 코란
 - (1) 성경에 대한 이슬람의 편견
 - (2) 접촉점의 도구로서의 코란
3. 코란이 말하는 예수
 - (1) 메시아
 - (2) 동정녀 탄생
 - (3) 죄 없으심
 - (4) 승천
 - (5) 재림
4. 이슬람 전도를 위한 접촉점

III. 결론

*BEE Korea 사무총장, 중동지역 선교사,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ss.과정

I. 서론

1. 연구 배경

이슬람은 약 15억의 추종자를 거느린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커다란 종교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도도 어떤 종교에게도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빠르다.¹ 이슬람의 성장비율은 2.17%를 기록하고 있어 기독교의 성장비율 1.43%나 기타 어떤 종교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²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3년에, 혹은 많은 미래종교학자들에 따르면 늦어도 2200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종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³

오늘날 세계에는 200여국가가 존재하고 그 중 66개국이 신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나라 가운데 42개국이 이슬람 국가이다.⁴ 그들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한다. 또한 ‘이슬람의 기둥(*Arkan ad Din*)’이라 알려진 다섯 가지 무슬림의 실천덕목은 이슬람을 필연적으로 배타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호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은 생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근거한 “샤리아⁵”는 배교를 철저히 죄악시 하며 배교한 이는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⁶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는 것 같지 않다. 많은 학자들은 이슬람이 근본주의로 복귀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코란의 가르침에 완전한 순종과 샤리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1 공일주, 『중동의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p.4.

2. Patrick Johnstone &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6th ed. (Cumbria: Paternoster Lifestyle, 2001), p.2.

3. B. A. Robinson, “Comparing Christianity & Islam” from http://www.religioustolerance.org/comp_isl_chr.htm. Internet accessed Dec. 1, 2005.

4. Johnstone & Mandryk, p.2.

5. 샤리아는 이슬람율법에 근거한 국가법으로 인간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답변과 인간의 삶을 인도해주고 인간의 책임을 명령하는 신의 계시로 간주된다.

6. 이승수, 『미전도 지역 무슬림세계를 향한 선교』 (서울: 예루살렘, 1992), p.69.

7. Anne Cooper, *Ishmael My Brother: A Biblical Course on Islam*, 도서출판 두란노 역, 『우리형제 이스마엘』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pp.176-77.

그러기에 오늘날뿐 아니라 미래에도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슬람은 가장 커다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이슬람권 선교가 가능한지 충분히 의심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슬람권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을 쥘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슬람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질문을 전환시킨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접촉점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복음에 적대적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접촉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접촉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접촉점의 개념에 근거한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먼저 이슬람의 특성 상 무슬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새롭게 인지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에

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슬람 선교에서의 효과적인 접촉점 유형을 정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접촉점의 도구를 구명하고자 한다. 즉, 무슬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성경을 접촉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코란을 접촉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연구될 것이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인 예수에 대해 코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코란을 사용해 무슬림들과 진정한 예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를 근거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접촉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이슬람에로의 접촉점의 성격

(1) 이슬람에로의 접촉점의 주요 대상

접촉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는 기독교 변증은 구원론과 창조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접촉점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준비하신 발판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므로 변증의 출발점으로서의 접촉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일상적인 모든 공간이라기보다는 비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원과 창조주의 주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특정화된 공간이다.

이슬람에서도 창조주의 주를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의 창조주와 미세한 차이는 있

8. Alister E. Mcgrath, 김석원 역,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서울: 서로 사랑, 2001), pp.22-24.

지만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주장한다.⁹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과 전혀 다른,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코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너희들을 위하여 부부를, 가족에게는 암수의 짝을 만드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그 속에서 번식시키시느니라.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라. 그분은 널리 들으시고 모두 보시는 분이시니라” (26:12)¹⁰

따라서 이슬람에게 창조주에로의 접촉점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구원의 주에로의 접촉점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로의 접촉점에서 주요 대상은 예수가 된다. 이는 무슬림을 개종하기 위해 접촉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에 그들을 접촉시키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회심요인과 접촉점

멍어(Marcia A Munger)는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때 심리적, 영적, 지적,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한다. 심리적 요인은 일상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종교를 택하는 것이며, 영적 요인은 구원에 대한 필요 때문에, 그리고 지적 요인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해함으로 기독교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국가가 갖는 가치관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이다.¹¹

모로(Andreas Maurer)는 이와 유사하지만 회심의 동기를 종교적(지적), 신비

9. Chawkat Moucarray. *Faith to Faith: Christianity & Islam in Dialogue*, 한국이슬람연구소 역,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pp.109-110.

10. 본 연구에서 인용한 코란은 한국어판은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1988년 펴낸 한글번역본을, 영어판은 A. Yusuf Ali가 번역하고 주석한 코란을 사용하였다

11. Marcia A. Munger. *Islam: Introduction and Approach*, 2nd Ed. (Irving: ICI University Press, 1996), pp.202-208.

적, 애정적(affectional), 사회정치적, 물질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멩어의 지적, 영적 요인이 모로의 종교적 요인으로 합해졌고, 모로의 사회정치적 요인은 멩어의 사회적 요인과 동일하다. 멩어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 반면, 모로는 신비적, 애정적, 물질적 요인을 더하고 있다. 람보(L. R. Rambo)에 따르면 신비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이상이나 육성 또는 기타 초정상적인 경험으로 유발된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폭발적인 통찰력을 말한다.¹³ 애정적 요인은 인간간의 결속력에서 오는 회심 동기를 의미하고¹⁴, 물질적 요인은 가난 등으로 인한 물질적 필요가 채워짐으로 회심하게 되는 동기를 말한다.¹⁵

멩어와 모로의 회심 동기를 종합해 보면, 종교적(지적), 신비적, 애정적, 사회정치적, 물질적, 심리적 등 여섯 가지가 된다. 멩어는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무슬림들에게 심리적 요인은 개종을 위한 충분한 원인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¹⁶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복음에 적대적인 무슬림들은 주로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 거주하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사회적 요인은 기독교에로의 개종에 가장 커다란 장애적 요소가 되며, 따라서 사회적 요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비적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일반적인 접촉점으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물질적 동기는 모리스도 지적했고 선교 현지에서 경험 하듯이 불순한 회심 동기가 되므로 복음 전도의 접촉점으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모로는 회심의 동기를 성별과 연령, 인종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선별된 10명의 회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표로 요약하고 있다. 다음의 표-1은 모로의 표를 번역해 실은 것이다.¹⁷

12. Andreas Maurer. "In Search of a New Life: Conversion Motives of Christians and Muslims" (D. Th. diss., University of South Africa), pp.122-26.

13. Ibid., p.123에서 재인용

14. Ibid., p.125.

15. Ibid., p.126.

16. Ibid., p.204.

17. Andreas Maurer Ibid., p.158.

(표-1) C1-C10 회심 자들에 대한 정보

코드	성별	인종	회심연령	현재연령	동기
C1	남	인도인	20	28	종교/애정/신비
C2	남	모로코인	23	26	물질/애정/종교
C3	여	인도인	26	42	애정/종교/애정
C4	여	유색인종	21	24	종교/신비
C5	여	인도인	25	40	애정/종교/신비
C6	여	인도인	16	39	애정/물질/신비
C7	여	유색인종	44	45	종교/애정
C8	남	흑인	25	43	종교/애정
C9	남	흑인	16	17	종교/애정/신비
C10	남	인도인	21	40	애정/종교/신비

10명의 회심자는 각자 자신의 회심 동기를 2-3개 들고 있는데, 제일 앞에 적혀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심 동기이다. 즉, C1의 경우 종교적 이유가 가장 중요한 회심 요인이며, 애정이 두 번째 회심 요인이다. 10명 중 회심 요인으로 종교적(지적) 동기를 든 사람은 9명이며 그 중 5명은 종교적 요인이 자신의 회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 신비적 요인은 6명이 들었지만 아무도 제일의 회심 요인이라고 답하지는 않았다. 애정적 요인은 9명이 들었고 그 중 4명이 이를 제일 중요한 회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사회정치적 요인은 아무도 들지않았고, 물질적 요인은 2명이 들었으며 그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무슬림들의 회심 동기와 연관 지어 볼 때 효과적인 접촉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종교적, 즉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필요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연관되는 접촉점이다. 둘째는 애정을 통한, 즉 그들과의 진정한 인간적 결속력을 통한 접촉점이다. 이 둘은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다. 후자만 시도될 경우 복음에 대한 접촉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은 불가능하다. 후자가 결여된다면 전자는 많은 경우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시도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 접촉점의 도구로서의 코란

위에서 무슬림에게는 종교적 접촉점과 애정적 접촉점이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애정적 접촉점은 긴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으로 접촉자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한다. 이는 어떠한 종교적 바탕 없이 사랑과 인내와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접촉점은 이 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존하는 자료에 근거를 두게 되고,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 가는 접촉점의 시작부터 전도 대상 무슬림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1) 성경에 대한 이슬람의 편견

대부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어떤 신학적 논증에서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슬림에게는 그렇지 않다.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104권의 책을 보내 주셨는데, 이중 네 권의 중요한 경전은 모세의 율법(토라), 다윗의 시편(자부르), 예수의 복음(인질), 모하메드의 코란이라고 주장한다.¹⁸ 그러나 그들은 성경과 관련이 있는 앞의 세 개는 손상되었으며 오직 코란만이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코란은 성경 이전의 계시를 대신한다고 믿는다.¹⁹

이는 전도를 목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할 때 무슬림들은 나름대로 근거 있는 거부감을 갖게 되며, 따라서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실상 무슬림을 접촉할 때 그들이 보이도록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²⁰

18. Charles R. Marsh, *Share Your Faith with a Muslim*, 이광호 역, 『모슬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52.

19. 이훈구 편저, 『비교종교학』 (서울: 은혜출판사, 2000), p.196.

20. 사실 많은 중동 국가에서 기독교는 적대적 종교로 인식되며, 성경을 보이도록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2) 접촉점의 도구로서의 코란

반면에 무슬림에게 코란은 유일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음은 무슬림들이 코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²¹

- 1) 코란은 이전의 선지자들의 책들을 확인하며 완성시킨 것이다.
- 2) 코란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다.
- 3) 코란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이다.
- 4) 코란은 영원한 것이며 창조된 것이 아니다.
- 5) 코란은 알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한다.
- 6) 코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다.²²
- 7) 코란의 책들은 정결하고 그 가르침은 옳은 것이라고 한다.

무슬림에게 있어 코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가나에서 이슬람을 연구한 신학자 드렛키(James P. Dretke)는 다음과 같이 코란이 접촉점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코란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단지 개인의 영적 자극의 근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무슬림의 마음에 대한 소개도 제공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은 흥미진진한 장소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슬림에게 자신의 증언을 시작하도록 하는 많은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노아에 대한 수많은 참조구절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하고 흥미 있는 구절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탐구하기를 기다리는 대화와 증거를 위한 열린 문들이 있다.”²³

프로테스탄트를 가져온 종교개혁의 주장 중 하나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이 원칙은 성경이 결정적인 근원으로 모든 기독교 교리와 실천의 표준일 뿐 아니라 유일한 근원이자 표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란을 포함해 성경 이외의 그

21. Jack Bird. *Studies on Islam*. 중동선교회 역,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예루살렘, 1992년), pp.57-59.

22.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하므로 어쩔 수 없이 차이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코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고 지금도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역으로 인한 오류나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3. James P. Dretke. *A Christian Approach to Muslims: Reflections from West Africa*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pp.181-82.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²⁴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코란을 사용해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접촉점으로 코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인간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이해범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신뢰하는 코란을 접촉점으로 사용해 그들의 이해범주 안으로 들어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자는 것이다.

3. 코란이 말하는 예수

위에서 회심의 요인을 살펴보아 애정과 종교적(지식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종교적 요인을 설명하는 접촉점으로 코란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종교적 요인 중 가장 핵심인 예수를 설명하는 접촉점으로 코란을 사용하기 위해 코란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는 ‘이사,’²⁵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븐 마리암,’ 메시아(알 마시흐), 말씀이라는 의미의 ‘칼리마,’ 영이라는 의미의 ‘루흐,’ 선지자라는 의미의 ‘라술,’ 예언자라는 의미의 ‘나비,’ 표적 또는 예증이라는 의미의 ‘아-야’ 등으로 총 93절에 기록되어 있다.²⁶

(1) 메시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이어 표현이므로 베드로는 “주는 메시아이니이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24. Marsh, *Ibid.*, pp.52-53.

25. 본 연구에서 참조하는 한국어 코란에는 ‘이사’가 ‘예수’로 번역되어 있다.

26. 전재욱, 『이슬람교의 기독교론-꾸란의 예수 이해를 중심으로』 in 이슬람연구소 편저,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pp.14-27.

코란에서도 예수께 대해 “메시아”라는 칭호가 11회 사용되었다(3:45; 4:157, 171-172; 5:72 등).²⁷ 이 칭호는 코란에서 오직 예수께만 사용된 칭호이다. 이렇게 코란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칭함으로써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²⁸ “예수”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코란은 하지 않고 있다.²⁹ 이 칭호의 배경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크게 두 견해로 나뉜다. 부정적 의미는 예수를 기독교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보지 않기 위해 폄하한 것으로 보이며,³⁰ 코란 자체가 이 칭호를 긍정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견해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견해는 히브리어인 ‘기름 붓다’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견해로 많은 무슬림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³¹ 이는 예수의 기적적 잉태(3:42-47)와 그를 말씀을 증거 하는 선지자로 보는 것(5:46, 110)과도 조화된다. 그렇지만 코란에서 메시아의 의미는 신구약 성서에서의 메시아 개념과는 다르다. 이슬람권의 전통에서 본다면 기름부음을 받는 것은 예언활동을 위한 자격 인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²

이슬람 학자들은 이 “메시아”가 기독교적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히브리적 어원에서 온 것이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³³ 메시아는 어원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이 단어의 히브리적 기원을 인정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물질적인 기름과 연관 지어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³⁴ 하지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코란에서는 예수를 “성령으로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2:87, 253; 4:171; 5:110). 이는 코란에서 사용된 “메시아”라는 표현이 “성령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가 된다. 구약적

27. 한글과 영어의 대부분 번역본에는 아랍어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하기도 한다.

28. Ernest Hahn, *Jesus in Islam: A Christian View* (Hyderabad, India: Henry Martyn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1975), pp.37-38.

29. A. Christian van Gorder, *No God But God: A Path to Muslim-Christian Dialogue on God's Natur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3), p.70.

30. Moucarry는 그의 책 242-243에서 이에 대한 10가지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유사한 아랍어 의미를 통해 해석을 부여한 것으로 “만지다”와 “돌아다니다”, “기름”이나 “평발”과 관련된 해석이다.

31. Ibid.; 전재욱, p.24.

32. 전재욱, p.24.

33. Moucarry, Ibid., pp. 242-243.;전재욱, p. 24.

34. Ibid.

의미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특수한 의미에서 부어 받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인물을 성별하여 특별한 임무를 맡김을 표지한다(사 61:1; 슥 4:1-6).³⁵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러한 기름부음의 절정은 예수에게서 이루어진다. 신약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으며(마 3:16-17), 성령이 한량 없으셨음을 증거한다(요 3:34).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도 세례를 받으실 때이다. 그러므로 신약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은 그분의 신성과 관계가 있다.

(2) 동정녀 탄생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증언하고(마 1:23),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증언하여(마 1:18)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코란 역시 예수의 동정녀 탄생, 더 나아가 예수의 잉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대답하여, “내가 그대의 주님의 사도이니 그리하여 내가 그대에게 의로운 아들을 주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며, 내가 행실이 나쁘지도 않았음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노라. 그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러하니라.” 하였으며,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라. 그리고 나는 그를 인간들에 대한 징표와 내가 보내는 자 비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잉태하여 그와 함께 먼 곳으로 갔느니라.” (수라19:19-22)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수태고지와 흡사하다. 마리아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며, 내가 행실이 나쁘지도 않았음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천사는 “그것은 그러하니라”고 마리아의 동정을 인정했다. 또한 4:156에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마리아에 대하여 심한 중상을 퍼뜨렸으며”로 되

35.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pp.242-43.

어 있고 그에 대한 한글과 영어 코란 모두 주석을 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간통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이 심한 중상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특히 영어 코란은 참조구절로 19:19을 지적하고 있다.³⁶ 이는 코란이 마리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처녀로서 예수를 잉태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에 의해 예수께서 잉태되었음을 암시한다.

(3) 죄 없으심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 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하며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심을 천명하고 있다. 코란도 동일하게 이를 말한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 중 “내가 그대에게 의로운 아들을 주리라”에서 “의로운”으로 번역된 아랍어는 “*zakiyya*”로서 영어에서는 holy, faultless로 번역되며 완벽하게 죄가 없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³⁷

(4) 승천

성경은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눅 24:51)라 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셨음을 분명히 했다. 코란 역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께로 높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라.”³⁸

이 절은 예수께서 이층천이나 삼층천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에게로 취하셨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올리셔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그 곳으로 올렸다는 것이다.³⁹

36. 한글코란 p.210, 영어코란 p.230.

37. John Gilchrist. *The Uniqueness of Jesus in the Quran and the Bible* (Benoni: Jesus to the Muslims, 1979), p.3.

38. 한글 코란은 번역이 분명하지 않다. 영어로는 “God raised him up unto Himself”로 번역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를 올리신 것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

39. John Gilchrist, *Ibid.*, p.4.

(5) 재림

성경과 코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각각 기록하고 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진실로 그는 그 시간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이니라.”(43:61上)

이에 대한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And (Jesus) shall be a sign for (the coming of) the hour (of Judgment).

즉 “(예수께서는) (심판)의 시간이 (올 때의) 표적이니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심판의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코란도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4. 이슬람 전도를 위한 접촉점

예수가 메시아 되심,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죄 없으심,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은 예수가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구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란도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를 단지 예언자라고 듣고 신봉해 왔던 무슬림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자신들의 경전인 코란에서 예수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는 이러한 구절들은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이슬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제안한다.

- 1) 애정적 요인을 근본적인 접촉점으로 삼으라.
- 2) 코란을 종교적 접촉점으로 삼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예수에 대한 생각에 도전을 주라. 즉 그들에게 코란을 사용하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심, 승천, 재림을 알려주라.

그리고 이와 같은 접촉점들은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고 신비적 요인을 위해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신뢰하는 코란을 접촉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제안했다. 또한, 애정적 요인과 함께 코란을 기초로 예수에 대한 지적 요인을 접촉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기독교 교리와 실행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의 사용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코란을 접촉점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한 것은, 코란의 권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그들 자신의 성서인 코란을 통하여 수정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예수를 발견해주도록 성경적 진리로 인도하고자 함이다.

이는 사도바울의 다음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19-23)

본 연구에서는 커다란 개념과 원칙들을 다루었다. 따라서 애정적 접촉점과 코란을 이용한 종교적 접촉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접촉점을 통하여 무슬림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회심까지 이끌지가 추후로 연구된다면 무슬림 선교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전도전략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Key Words 이슬람과 기독교의 접촉점, 이슬람 회심, 코란, 메시아

ABSTRACT

Moon Sang Cho

Islam is not only the most rapidly growing religion in the world but also most threatening religion against Christianity in the world. Although it is anticipated that the inimical tendency of Islam toward Christianity and its mission for the Islamic world will grow in the future, Christians need contact points to approach to the Muslims to preach the gospel because they must preach the gospel to the Muslim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the Lord gave to th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useful contact points which Christians can use to approach to Muslims to Christianit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paper, first, reviewed types of contact points based on the conversion motives of Muslims, second, explored that the Quran is a useful tool as a contact point, thirdly, appraised what the Quran says on Jesus to assess that the Quran can bridge between Jesus and the Muslims, and finally, presented efficient contact points for the Muslims.

This paper found that Muslims need a religious contact point to the Savior instead of the Creator because the latter is placed in their faith firmly. The religious contact point needs to be coupled with affectional one to approach and share the gospel to the Muslims efficiently. The Bible is not a useful tool, but the Quran is because Muslims accept the Quran as God's word but not the Bible. This paper also found that the Quran mentions about Jesus as Messiah, his virgin birth, faultlessness, ascension, and second coming.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o use affectional contact point with religious one based on the Quran to challenge Muslims on their perception on Jesus.

● REFERENCES CITED

- 공일주, 『중동의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2.
-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 안동훈, 박병현, 성하창, 『코란』. 서울: 이슬람 국제출판국, 1988.
- 이승수, 『미전도 지역 무슬림세계를 향한 선교』. 서울: 예루살렘, 1992.
- 이훈구 편저, 『비교종교학』. 서울: 은혜출판사, 2000.
- 전재옥, 「이슬람교의 기독교론-꾸란의 예수 이해를 중심으로」. 이슬람연구소 편저,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Ali, A. Yusuf. *The Holy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Brentwood: Amana Corp., 1983.
- Bird, Jack. *Studies on Islam*, 중동선교회 역,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예루살렘, 1992.
- Cooper, Anne. *Ishmael My Brother: A Biblical Course on Islam*, 도서출판 두란노 역, 『우리형제 이스마엘』.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Dretke, James P. *A Christian Approach to Muslims: Reflections from West Africa*.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Gilchrist, John. *The Uniqueness of Jesus in the Quran and the Bible*. Benoni: Jesus to the Muslims, 1979.
- _____. *Al-Masih Isa: The Glory of Jesus The Messiah*. Benoni: Jesus to the Muslims, 1986.
- Gorder, A. Christian van. *No God But God: A Path to Muslim-Christian Dialogue on God's Natur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3.
- Hahn, Ernest. *Jesus in Islam: A Christian View*. Hyderabad, India: Henry Martyn Institute of Islamic Studies, 1975.
- Johnstone, Patrick & Mandryk, Jason. *Operation World*, 6th ed. Cumbria: Paternoster Lifestyle, 2001.

- Marsh, Charles R. *Share Your Faith with a Muslim*, 이광호 역, 『모슬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Maurer, Andreas. “In Search of a New Life: Conversion Motives of Christians and Muslims” ,D. Th. diss., University of South Africa
- Mcgrath, Alister E. 김석원 역,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서울: 서로 사랑, 2001.
- Moucarry, Chawkat. *Faith to Faith: Christianity & Islam in Dialogue*, 한국이슬람연구소 역,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Munger, Marcia A. *Islam: Introduction and Approach*, 2nd ed. Irving: ICI University Press, 1996.
- Robinson, B. A. “Comparing Christianity & Islam” from http://www.religioustolerance.org/comp_isl_chr.htm. Internet accessed Dec. 1, 2005.